

초심자를 위한 양봉사양관리



가 야 양 봉 원
대표 김 상 태

8. 동봉산란 처리법

우리는 가끔 양봉관리에 소홀한 틈을 타서 무왕상태로 방치하였을 때 왕봉산란이 아닌 동봉산란하여 울통불통 소비면을 온통 못쓰게 버려 둔다. 동봉산란은 동봉방 한 소방에 2~3개씩 알을 낳는데 짙은 유백색 알을 소비에 낳게된다. 이런 현상이 오기 전에는 봉상 뚜껑을 열고 개포를 들면 세~하는 소동소리를 내어 왕봉이 없음을 상징한다. 이때 합봉을 하던지 왕봉 유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무정란(동봉산란)으로 웅봉이 되어 1군이 폐망에 이르게 된다. 그 기간이 빠르면 일주일만 지나도 동봉산란이 이루어진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정방법을 소개한다.

1) 관리법 1

- 가) 동봉산란 봉상을 원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1일간 방치)
- 나) 원위치에서는 빈봉상을 둔다.
- 다) 이동한 봉상에 산란동봉 소비를 소문에서 70cm 떨어진 곳에 벌을 털어서 밀도로 평평하게 정리한 후 타봉군에 흩어 넣어 준다.
- 라) 산란 동봉벌은 정상왕봉을 왕봉에 넣고 봉층만 있는 소비를 넣어 합봉 한다. 2~3일 후 왕봉은 왕에서 개방한다. 원위치의 빈 봉상에 날아온 벌은 공 소비에 붙혀 다른 군으로 분산 합봉 한다.

2) 관리법 2

저녁때 동봉산란이 든 무왕군을 다른곳에 옮겨두고 이것보다 우수한 봉군을 왕봉은 왕봉에 가두고 원 위치에 둔다. 옮겨놓은 동봉산란군을 전부 털어 버리면 (바깥) 산란동봉은 남고 나머지는 원 위치로 돌아온다. (산란동봉은 날지 못한다) 원위치에 돌아오는 벌은 왕봉과 동화되기를 기다리며 2~3일 동안 가두었다가 왕봉을 개방한다.

3) 관리법 3

- 가) 1일간 동봉 산란군을 다른 곳으로 이동(약 10m 이상)
- 나) 원상자리는 빈통(무소비)에 소문 탈봉기 부착
- 다) 이동상에 소비를 소문 약 70cm거리에서 벌을 털어 소비를 2~3일간 냉한 곳에 별도 보관.
- 라) 산란동봉은 원상복귀해서 감금 또한 신봉은(산란하지 않는 벌) 원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 마) 이동상에는 공소비를 주어 왕봉 유입법에 의해서 유입한다. 냉한곳에 둔 소비를 정리하여 다른강군에 삽입한다.
- 바) 이동 산란 봉층은 밀도로 잘라 처리한다.
- 사) 원상자리 노봉은 1~2시간 후 사양시킨 후 공소비 2~3매 공급 후 소문용 탈봉기 철거 후 왕봉유입 산란조치 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2군이 형성된다.

9. 분봉 방지법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분봉을 일으켜야만 군수를 늘릴수 있지만 꿀을 채밀하기 위해서는 분봉을 억제해야만 원하는 채밀을 얻을수 있다. 분봉열이 나면 수밀이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로써 우리 양봉가는 내검할 때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소비 한장 한장 잘 관찰하여야만 된다. 아카시아 유밀이 시작되어 밀방을 잡으면 의례 왕대를 조성할 지배봉이 방을 구축한다. 이때 방은 왕대를 말한다. 일단 구축한 방에 산란이 되면 분봉열이 낫다고 말할수 있다.

그때부터 왕봉은 산란을 중단하고 분봉하기 위해 몸이 작아지는가하면 동봉은 외역을 하지 않고 분봉할 준비를 갖게된다.

즉, 꿀이 많고 군세가 많아 할 일이 없을때 분봉열이 발생하게된다. 분봉열이 발생하게되면 동봉 무리는 신왕봉을 조성하여 찬동하는 벌과 구왕봉을 찬동하는 벌이 분리되어 분봉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일단 분봉열이 나면 좀처럼 막기가 힘들다. 다음과 같이 부단한 조치로 관리해야 될 줄 믿는다.

1) 방지책

- 가) 구왕을 제거하고 신왕을 보유한다.
- 나) 곧 출발할 봉롱매를 약군으로 주고 소초를 주어 조소작을 시킨다.
- 다) 내검은 자주하여 왕대를 파괴시킨다.
- 라) 채밀을 시도한다.

- 마) 공소비를 주어 산란과 저밀을 유도한다.
 바) 12매상과 계상을 주어 계속 일자리를 준다.
 사) 수직 격왕판을 제거한다.
 아) 소문을 넓혀준다.
 자) 대용화분 및 장려사양을 중지한다.
 카) 보온물을 제거한다.
 타) 웅봉방을 제거한다.
 파) 강군을 저지시킨다.
 하) 개포밀 공기유통을 원활히 한다.
 이상과 같이 아카시아 유밀을 대비하여 분봉열이 나지 않게끔 자주 내검하여 우선적으로 왕대를 조기에 파괴하여 소기의 목적인 다수확의 폭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필자가 경험한 소신 그대로 투고하는 바이다.

10. 강군 양성법

약군 10군보다 강군1군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다. 강군이 유지되어야만 병충해 예방은 물론 폭진된 봉군에서 채밀은 물론 도봉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종봉도 값이싼 약군보다 값이 비싼 강군을 구입하게된다. 강군이라 함은 한마디로 벌 위에 벌이 기어다니는 것을 강군이라 할 수 있다. 강군은 약군의 꿀을 빼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이 강군 양성의 기본 관리를 소개한다.

- 1) 원만한 봉군조성 : 가시웅애, 부저병, 노제마 등 병충해를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 2) 월동소비에서 1~2매만 조밀한 착봉으로 보온을 유지시키고 다른 소비는 털어 낸다.
 - 3) 조춘 번식을 위해서 대용화분 급수 및 장려 사양을 실시한다.
 - 4) 매일저녁때 소량씩 사양시키면 사양냄새를 맡고 왕봉이 자극을 받아 산란을 실시한다.(2월5일경 입춘 전후가 적절)
 - 5) 벌이 적게 붙은 소비를 격리판 넘어로 보내어 벌을 조밀하게 붙인다. 2)번과 같은 관리로서 왕봉이 없는 것으로 넘겨보낸다.
 - 6) 습기제거 보온을 철저히 유지시킨다. 봉장에는 습기가 없도록 싸겨가 좋다.
 - 7) 내역봉과 외역봉이 충분한 일벌 보유할 것
 - 8) 종봉은 반드시 수밀력이 강한 우량종으로 선택한다.
 - 8) 약군은 왕봉을 없애고 8시간 후 합봉망을 이용하여 강군에 합봉함이 적절하다.
-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도 소개하였는데 약군

을 보유하고는 양봉을 기르는 화초에 불과하며 경제적인 면을 추구하여 이득을 보기 위해선 절대 강군을 유지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 우리가 사양채밀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억제하여 양질의 벌꿀(농도가 좋은 벌꿀)을 채밀하려면 우선 강군 유지를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시에도 강군은 열이 나기 쉽다. 요즘은 소문마개도 공기가 유통할 수 있는 기구가 나와 발열을 막을 수 있다. 필자는 조춘 종봉 이동으로 스티로폼 벌통을 그대로 몇군 이동한 결과 열이 발산되지 않아 열에 못 이겨 상내에서 죽어 실패에 이르러 보상해준 바 있다. 앞으로는 스티로폼 월동 소상에서 이동은 절대 삼가해야 될 줄 믿는다.

요즘과 같이 밀원에 따라 이동하는 봉군이 많아 대군양봉이 고정봉장 가까이 와서 단독 밀원을 방해한다. 밀원에 주인이 없고 양봉 진흥법이 없는 한 어쩔 수 없다. 이럴수록 고정 양봉은 철저한 강군 유지가 요구된다. 단 1군이라도 강군을 유지하여 도봉에서 막을 수 있는 강군 관리가 거듭 요구된다.

11. 봉군 사양법

양봉에 있어서 사양이란 필수적으로 관리자가 알고 적당하게 먹이를 사양해야 만이 소방안에서 결정되지 않고 모든 번식에 지장이 없다. 우리식단에 밥과 반찬이 알맞게 차려 졌을 때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기르는 꿀벌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사양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월동사양과 장려사양이다.

- 1) 월동사양
계절에 따라 사양농도가 틀리는데 월동사양은 물 2합 3작에 설탕 600g이 가장 알맞다. 부피로는 1:1의 비율로 맞추어도 무방하다 여기다가 설탕 15kg 한포당 소금 20g정도 넣고 항생제나 설파제 10g 또는 후비덜B 30g 정도 혼합해서 사양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월동 사양은 반드시 백탕으로 해야 냄새가 나지 않아 도봉을 막을 수 있다. 상기 약제 투여는 마지막 사양시 2~3회 처리함이 좋다. 이는 예방차원에서 먼저 면역을 내포하는 원인이다. 그리고 사양은 해질 무렵에 시작해야 한다. 시기는 10월초부터 시작하여 일찍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사양후 습기가 소상안에 잠재되어 있으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특히 설사병에 주의해야 된다. 월동사양은 소비를 빼내어 벌을 밀착시킨 후 사양을 실시한다.





사양량은 설탕 1.2kg에 약 1군에 약 6~7kg에 해당된다. (소비에 저밀이 없을 때 기준) 이는 4~5대 기준이다. 소비 저밀방에 2/3이상 봉개가 되면 안전하다고 본다.

필자는 물을 끓이지 않고 설탕이 녹을 정도로 열을 가하면 된다고 본다. 구태여 수돗물이나 샘물이면 끓일 필요가 없다 사양기는 물이 새지 않아야 되며 필히 사양기 철망을 삽입하고 대형 주전자로 부어 주면 된다. 근래에 와서는 편하도록 자동사양기를 장치하여 사양하면 노고를 덜고 편리하다. 사양 후 벌들이 냄새를 맡고 나오기 때문에 필히 해질 무렵에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 장려사양

장려사양이란 벌 번식을 촉진하기 위해 왕봉이 사양냄새를 맡고 산란을 능률적으로 시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연중 실시하게 되는데 조금씩 자주 주도록 하는 것이다. 무화기 때 소상의 뚜껑을 열고 개포를 반쯤 열어 소비 사이로 당액을 분무기로 분무하면 된다. 나머지 반도 소비사이로 주면 된다. 특히 도봉에 주의하며 혼연기를 사용하여야 될 줄 믿는다.

이는 초봄이나 여름 장마철에 행하여지는데 많은 양의 사양은 삼가 해야 된다. 농도는 월동사양보다 묽게(설탕 600g에 물 5합 정도)타서 사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봉을 시작하면 항시 저밀방에 꿀이 차 있어야 벌 자체 약군을 면할 수 있고 또한 육아를 기르는데 지장이 없다. 흔히 양봉가는 밀방을 잡았다는 말은 방울꿀이 아니고 상부층 밀방에 일렬로 꿀이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봉군의 안정을 표현한다. 양봉가의 부주의로 질량이 되어 육아를 빼내고 성봉이 소방안에서 머리를 박고 죽어있어 종말을 맺는 폐망의 양봉은 절대 없어야 될 줄 믿는다.

12. 봉군 월동법

봉군월동이란 여름철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서 봉군의 기력이 저하되고 산란 및 활동이 중단되어 군세가 줄고 월동사양이 충만한 상태에서 차가운 겨울을 지나는 시기를 말한다. 요즘은 스티로폴 월동상이 출현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소비만 옮겨지면 그대로 월동을 지나도 무사하다. 위치로는 앞이 확 뚫린 남향 및 동향이 좋다. 그늘진 곳은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다. 배수가 잘 되도록 주위에 고랑을 만들어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습기

찬 봉장이면 싸거를 깔아 놓으면 이상적이다. 소문은 약 2~3cm로 축소시키고 햇빛이 차단되는 소문터널을 부착하면 더욱 이상적이다. 봉상내부에는 소비를 빼내고 스티로폴에다 수성 페인트를 칠하면 뜯지 않고 잘 보온된다. 대군 월동은 소비를 그대로 두고 스티로폴만 넣는다.

스티로폴상에는 뚜껑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색 깔 있는 비닐로 덮어두고 끈으로 동여맨다. 개포도 공기가 잘 통하는 마대로 덮어주면 좋다. 비가와도 소문쪽으로 물이 내려 가겠끔 전면을 낮추고 후면을 약간 높인다. 쥐나 방화 침입을 막을 도리는 없으므로 스스로 알아서 예방할 수밖에 없다. 전기가 온 사고도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비가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겨울에 눈이 덮으면 쓸어내고 소문을 점검하여 항상 공기가 통하도록 철사나 송곳으로 저어 주어야 한다.

창고 월동을 하는 양봉가는 특히 햇빛을 잘 차단하여야 한다. 햇빛이 화살 처럼 투과하면 그 빛을 보고 벌이 출방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 필자가 경험한 바, 벌의 손실이 많았다.

토굴에 비해 창고월동이란 벌의 손실을 막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웬만하면 창고월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노지월동으로 일반 나무 소상은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버짚이나 왕겨를 깔고 그위에 비닐을 덮고 벌통을 놓는다. 일렬로 사이 공간을 두지 않고 뚜껑 공기창을 맞대고 붙인다. 보온 덮개로 밑에서부터 소상 뒷부분을 감아 천면까지 덮는다.

천면(天面)에는 스티로폴이나 버짚을 덮으면 더욱 이상적이다. 그 위에다 보온덮개로 덮고 비가 새지 않도록 비닐로 덮으면 안전하다. 단,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새끼나 끈으로 졸라맨다.

소상 뚜껑아래 벌통사이 공간도 스티로폴 3cm 두께로 재단하여 공간을 메운다. 앞면 부분도 스티로폴로 소문만 남겨두고 부착하는 것이 좋으며, 두께는 약 2cm 정도로 하면 된다. 밀착된 봉군은 겨울에 육아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약 5~6개월간 수명이 유지된다. 월동안 내검은 할 필요 없이 이듬해 2월5일경 입춘을 기해서 따뜻한 날을 택하여 내검한다. 생사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월동법을 소개한다.

